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Japanese Version Costume

— Focused on the Karaginumo Shozoku —

Yoshiko Masuda

Gakushuin Women's College

1. Preface

Even now in Japan, "Sokutai" or "Karaginumo shozoku" are often worn in important festivals in the Palace or at the wedding among Royal families. Those costumes are the succession of the clothing of the aristocracy in Heian period (794~1192).

The clothing of the aristocracy in Heian period was formed as the result of digestion of the Tang clothing of China which had been actively introduced to Japan from Nara period to Heian period (710~first half of 9th century). It has, however, not yet emerged that the process how such Japanese version costumes as "Sokutai" or "Karaginumo shozoku" which are still worn these days were formed after the Tang clothing. According to the currently prevailing opinion, the trend to put on more layers of clothing under the costume in Nara period was the reason why the people converted "Mo" (long skirt) or "Hakama" into the design of "Karaginumo shozoku", and it is also said that the original costume itself was either "Chyofuku" or "Seifuku". However, as described in the preceding studies, it is hard for me to agree that "Karaginumo shozoku" were developed because of the trend to put on more layers of clothing under the costumes in Nara period.

2. Women's costumes in Nara period

Both Raifuku and Chofuku specified in the Yoro Ifukuryo enacted in 718 year which was enacted under the influence of Tang were basically the combination of the clothing of Oosode tarikubi i and the Mo of long skirt.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find what kind of clothing of Seifuku is in the Yoro Ifukuryo. It is considered that there were no other restrictions than colors about the daily service wears.

3. Aristocratic ladies' costumes after the middle of Heian period

According to the descriptions in Onnas-hozoku of the literature "Seikyuki" written from the middle to latter part of Heian period, such costumes as Raifuku, Chofuku and Jinjyofuku (the daily service wears) are composed as stated below:

Raifuku; Choketsui, Mo, and Hirami

Chofuku; Karaginu, Mo, Hire (shawl) and San (ornamental hairpin)

Jinjyofuku; Karaginu, Mo, and Hire

The basic composition of Karaginumo-shozoku seen in the literatures written in 11th century is: Karaginu, Mo, Uchiki, Hitoe,

and Naga bakama.

Here, it is said that the center of the Karaginumosozoku formed after the middle of Heian period is the multi layers Uchiki which are made much of the combined color scheme. It is also presumed that the normal home wear of the upper class aristocratic ladies were composed of only Kasane uchiki, Hitoe, and Hakama.

4.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Karaginumo shozoku

The costumes for the Emperor and Empress to be made every year are described in the Nuidono ryo of "Engishiki" administration rules on annual events,ceremonies etc.in the Palace which was enforced in 927. The costumes for the Empress for one month in the spring which are specified therein are as follows:

Ten(10) Hous, Ten(10) Haishis, Ten(10) Hitoes, Four(4) Hires, Two(2) Omote no awase no monos, Two(2) Shitamas, Fifteen(15) Hakamas, Twenty(20) Hitoe no hakamas, Three(3) Uchikis, and Three(3) Hitoe no uchikis.

The name of "Uchiki" for a specific costume is seen for the first time. Generally speaking, Uchiki stands for underwear. As far as we see the above composition, it is, however, very unlikely that such wears as "Uchiki" and "Hitoe-no-uchiki" were put on under such outerwears as "Hou" and "Haishi". The necessary quantity of cloth for making each costume is mentioned in the "Engishiki" rules. According to the rules, 3.75 meter long silk cloth is the quantity for one "Hou", while 11.25 meter long silk cloth and 3.2kg silk cotton is necessary for making one "Uchiki". Those suggest that it is very unlikely to wear "Uchiki" under "Hou". The quantity of "Hakama" and "Shita hakama" specified therein are quite big. In comparison

with the quantity of ten each for the Emperor, the quantity of the "Hitoe no hakama" only is twenty for the Emperor's. This might be so big even when considering the special conditions for the woman. Those listed therein are various wears and costumes which the Empress wears during one month, not at one time.

From this, it is presumed that the "uchi" of "Uchiki" could mean not "underwear", but "inside",the opposite of "outside". The inside of the house is called as "uchi" even nowadays. Therefore, such wears as "Uchiki" and "Hitoe no uchiki" could be considered to be so called homewears. When an aristocratic lady relaxes at home, she might put on the "Hitoe no hakama" and "Hakama", then "Hitoe no uchiki" over these wears, and "Uchiki" (containing cotton layer) on top of them.

5. Summary

As a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Karaginumo shozoku" is not such a reformed version of the Chofuku or Jinjyofuku of Nara period as said in the accepted theory, but a further development of the "Uchiki" worn at home by the aristocrat ladies since the first half of 10th century. It is further presumed that the ladies probably did not wear the homewear "Hitoe no uchiki" together with one Uchiki of wadded clothes as an over coat, but they put on multi layers of "Uchiki" with no wadded silk cotton from their viewpoint on the beauty of the combination of colors. This could have made their Hakama larger.In the section of Jinjyofuku of the above mentioned "Seikyuki", Karaginu, Mo and Hire are specified

as the essential wears for their daily service. It is consequently said that the aristocratic ladies at home wore only "Uchiki", while the female service officers put such wears as Uchiki, Karaginu, Mo and Hire when they came to serve the aristocratic ladies at home.

일본풍의 성립 과정

- 당의(唐衣)를 중심으로 -

마쓰다 요시코

가쿠슈인여자대학교

1. 서문

일본에서는 오늘날에도, 궁중의 중요한 제례나 결혼식 때에, 속대(束帶)나 중국 당나라 시대의 예복(이하 “당의”로 칭함)를 입는데, 이것은 헤이안 시대(794~1192)에 성립한 귀족 복식을 계승하여 내려온 것이다. 1000년 전부터 그러한 모양을 갖춘 복식이, 21세기인 오늘날에까지 계승되어 왔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일본 문화 특징의 일례이기도 하다.

이들 헤이안 귀족의 복식은, 나라(奈良) 시대부터 헤이안(平安) 시대 초기(710~9세기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중국 당나라풍 복식을 일본에 맞게 소화시켜 성립한 것이다. 그러나 당나라풍의 복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속대(束帶)나 당의(唐衣) 복식으로 탄생되었는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통설로는, 당의는 나라시대 복식의 아래에 걸쳐서 입으면서 모(裳, 긴 치마) 또는 하카마(袴)를 변형시켰다고 하며, 그 기초가 되는 복식에는 조복(朝服) 형식과 제복(制服) 형식이 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진술한 것처럼, 나라 조정의 의복 아래에 걸쳐 입으면서 성립한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 아래화 같은 추론을 전개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귀중한 조언과 지도를 받고 싶다.

2. 나라 시대의 여성 복식

718년 성립한 양로의복령(養老衣服令)에 따라, 나라시대 여성복식의 구성을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예복 [공주, 여왕, 5품 이상의 관리 부인]

보계(宝髻), 의(衣), 비대(紕帶), 습(褶), 힐군(纈裙), 말(襪), 석(屨)

조복(朝服) [공주, 여왕, 등급(位)이 있는 궁녀]

의계(義髻), 의(衣), 비대(紕帶), 군(裙), 말(襪), 이(履).

제복(制服) [등급(位)이 없는 궁녀, 서민]

의(衣), 군(裙), [대(帶), 말(襪), 이(履)] (『영의해(令義解)』)

* 괄호 ()는 저자의 추측에 의한 것이다.

예복은 황족(皇族)과 5위(位) 이상의 궁녀가 중요한 제사와 설날에 입었고, 조정에 나갈 때 입는 조복(朝服)은 황족 이하 초위(初位) 이상의 궁녀가 사맹(四孟, 1,4,7,10월)의 1일에 행해지는 조례 때에 입었다. 또 6 등급~초위의 궁녀는 중요한 제사나 설날에도 이것을 입었다. 제복(制服)은 등급이 없는 궁녀나 서민이 사맹의 1일이나 일상적인 날에 착용하였다. 예복의 의(衣)는 대수수령의(大袖垂領衣), 군(裙)은 긴 치마, 습(褶)은 군(裙)의 아래에 입는 장식이 있는 치마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조복(朝服)의 의(衣)도 예복과 동일한 대수수령의(大袖垂領衣)라고 추측되고 있다. 즉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성립하였다고 생각되는 의복령(衣服令)에 의한 예복과 조정에 나갈 때 입는 조복의 기본 구성은 대수수령의와 긴치마인 군(裙)이 합쳐진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제복(制服)의 의(依)의 형태는 의복령에서는 엿볼 수 없다. 그러면 초위 이상의 궁녀가 일상적으로 일할 때 입은 의복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은 남성에게 있어서도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의복령은 주로 크고 작은 의례를 행할 때의 복식을 정한 것이고, 평상적으로 일 나갈 때의 복장에 관해서는 남성의 제복 이외에는 색깔만 정하고 있다. 즉 일상적으로 일할 때의 복장은, 색 이외에는 형태 등에서 자유로웠다고 말할 수 있다.

3.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귀족 여성의 복식

헤이안 중기 이후 귀족 여성의 복식에 관해서는, 중기(中期) 경의 모든 문헌에서 다양한 명칭을 볼 수 있지만, 형태 등 실제 모습은 후기에 두루마기 등에 그려진 그림 외에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중기 귀족여성의 장식은 후기에 그려진 복식과 중기의 문헌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0세기 중엽~후반 경에 지어졌다고 생각되는 『니시노미야기(西宮記)』의 여장속(女裝束) (제 17권)을 통해, 예복, 조복, 평복의 형태로 나눠보면 보면 다음과 같다.

예복: 장매의(長袂衣) · 상(裳), 습(褶)

조복: 당의(唐衣), 상(裳), 영건(領巾), 잠(簪)

궁중 연회 때의 배선경의(陪膳更衣)로는 급당(袷襦)과 군대(裙帶)를 더하여 입는다.

평복: 당의(唐衣), 상(裳), 영건(領巾)

여기에서, 예복의 장매의(長袂衣)는 대수수령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거의 나라 시대의 예복을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조복, 그리고 평복에 관해서는, 이 문헌만으로는 훗날의 당의인지, 나라(奈良) 조정에 나갈 때 입은 정복이나 평복에 당의(唐衣)와 · 영건(領巾)이 더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1세기경의 문헌에서 보여지는 당의의 기본적인 구성은, “당의(唐衣), 상(裳) · 규(袿), 단(單) · 장고(長袴)”이고, 규를 5장 내지 6장, 많을 때에는 10장 이상 겹쳐 입었다. 즉, 중기 이후에 성립한 당의의 핵심적 특징은 몇 겹씩 겹쳐 입는 것이었는데, 그 겹침의 배색미(配色美)를 중시했던 것은 규(겉옷, 옷)에서 엿볼 수 있으며, 상류 귀

족 여성의 경우 일상적으로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은 중규(重袿), 단(單) · 고(袴)만 걸었다.

4. 당의의 성립 과정에 관하여

927년 성립된 『연희식(延喜式)』누이료(縫殿寮)에는, 천황, 왕후 연간에 제작된 복식품(服飾品)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에 의하면, 왕후의 춘계 1개월 분의 복식은, “포(袍) 10령(領), 배자(背子) 10령, 단의(單衣) 10령, 영건(領巾) 4조(條), 표겹군(表袷裙) 2요(腰), 하군(下裙) 2요, 고(袴) 15요, 단고(單袴) 20요, 규의(袿衣) 3령(領), 단규의(單袿衣) 3령”이다. 여기에 처음으로 「규(내)의(袿內衣)」라고 하는 명칭의 의복이 등장하지만, 이 명칭의 의복은 천황의 복식품으로는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헤이안 시대 부인의 옷」은 「내착(內着)」에 관한 것이고, 상의에 대해 속옷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구성을 보면, 「포, 배자(袍 · 背子)」등의 상의 밑에 「규의 · 단규의」를 함께 겹쳐 입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연희식』에는 각각의 복식품을 제작하고 필요한 옷을 짓는 데 쓰는 포(布)의 분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포 1장의 사용량은 명주 3.75m임에 비하여, 규의(袿衣) 1장의 사용량은 명주 11.25m이다. 그리고, 규의에는 3.2m 정도의 면(綿)이 들어간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포의 아래에 규의를 겹쳐 입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게다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고(袴), 하고(下袴)의 양은 상당히 많다. 천황의 경우는 각각 10요씩이다. 여성이라는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많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고(단고)의 수량은 천황의 하고의 2배이다. 여기에 기록된 복식품은 어디까지나 왕후가 1개월의 사이에 착용한 물품이고, 모두 동시에 입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헤이안 시대 부인의 옷」은 「중(속)에 입는 의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과 밖의 의미이다. 지금도 가정내(家庭內)에 관한 것을 「중(우저)」이라고 한다. 여기에서의 「규의, 단규의」는 이

큰바 가정 내에서 입는 의복이었다고 생각된다. 단고와 고 위에 단규의를 입고, 그리고 그 위에 면이 들어간 규의를 겹치는 모습이, 당시의 상류 귀족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편안히 설 때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10세기 전반 무렵의 헤이안 시대 부인의 옷은 아직 임시 숙소의 복식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한 무렵의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10세기가 끝날 무렵의 『우쓰보 이야기(宇津保物語)』를 보면, 여성 의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동일한 10세기말경의 『낙와 이야기(落窪物語)』에는, 상(裳)을 뒤쪽으로 끄는 인상(引裳)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기록도 볼 수 있고, 10세기 후반에는 훗날 당의(唐衣)의 원형이 완성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5. 정리

즉 당의는 통설과 같이, 나라 시대의 조복이나 평복이 변화하여 성립된 것이 아니라, 임시 숙소의 복식으로서 10세기 전반에 착용하던 복식이 헤이안 시대 부인의 옷으로 발달하여 성립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루어 보건대, 이 임시 숙소의 복식이었던 단규의(單袿衣) 위에, 솜옷인 헤이안 시대 부인의 옷을 1장 겹친다는 것이 아니라, 배색미를 추구함으로써 인하여 면이 들어가지 않은 옷을 몇 겹씩 겹치게 되고, 그것에 맞추다 보니 고(袴)도 점점 커지게 된 것은 아닐까? 이전 기록인 『니시노미야기(西宮記)』에는, 10세기 후반 일상적 출근복에 관해서는 당의, 상(裳)과 영건이 기록되고 있고, 이것이 출근복으로서는 필수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상류 귀족 여성들은 임시 숙소에 있을 때에는 규를 입은 모습이지만, 규를 입은 모습에 당의와 상을 입고, 영건을 걸쳐 입고 출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당의는 임시 숙소의 복식이었던 헤이안 시대 부인의 옷이 발달한 것이고, 이것에 나라 시대 복식의 자취인 당의(배자), 상과 영건을 더하여 성립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후의 새로운 일본풍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영

건은 의례시 이외에는 생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日本風的成立過

-以唐衣爲中心-

增田美子

學習院女子大學

1. 序文

在日本的如今，在宮中的重要祭禮或結婚儀式時，穿束帶或中國唐朝時代的衣裳禮服(下稱唐衣)，這是繼承了在平安時代(794~1192)成立的貴族服飾。從1000年前就具備其模樣的服飾，到21世紀的今天也在延續的事實是任何一個國家也找不到的日本文化特徵之一。

這些平安貴族服飾是經過奈良~平安時代初期(710~9世紀前半)，把積極納入的中國風服飾，改良爲符合日本的服飾而成立的。但是中國風的服裝經過什麼樣的過程而誕生如今的束帶或唐衣服飾，如今還是一個謎。

據說，唐衣是改變了奈良時代服飾下面重疊的服裝增大是裳或袴的變化，還有成爲其基礎的服飾具有出朝時穿的政服形式與制服形式兩種說法。但是筆者如前面的研究中陳述，很難認同於奈良朝的服裝形式下面重疊的服裝增大而成立的。

2. 奈良時代的女性服飾

根據于718年成立的養老衣服令，講述奈良時代女性服飾的構成如下：

禮服〔內親王、女王、命婦〕

寶髻、衣、紕帶、褶、纈裙、襪、舄。

朝服〔內親王、女王、有位宮女〕

義髻、衣、紕帶、裙、襪、履。

制服〔無位宮女、庶民〕

衣、裙(帶、襪、履) (『令義解』)

() 內的内容爲著者的推測

禮服是皇族與5位以上的宮女在祭禮和春節時

穿，朝服是皇族以下初位以上的宮女在四孟(1、4、7、10月)的1日舉行的朝會時穿著。另外，6等級~初位元的宮女在重要的祭禮或春節時也穿這些服裝。制服是無等級的宮女或庶民在四孟的1日或普通(日常出勤)時穿著。我認爲禮服的衣是大袖垂領衣，裙是長裙，褶是在裙的下麵附加的有裝飾的裙子似的物品。據推測，朝服的衣也與禮服同樣是大袖垂領衣。即，受唐衣影響而成立的衣服令的禮服與朝服的基本構成是大袖垂領衣的衣與長裙的裙的組合。由此可見，制服的衣的形態在衣服令無法觀察。那麼初位以上的宮女平時出勤時的衣服是什麼樣的呢？這對於男性來說可以說是一樣的，但是衣服令主要規定大小儀禮時的服飾，對於平時出勤時的服裝，除了男性的制服以外，只規定顏色。即，平常工作時的服裝，除了規定顏色以外，其他形狀都很隨意。

3. 平安時代中期以後的貴族女性服飾

有關平安中期以後的貴族女性服飾，中期可以在所有文獻中看到各種各樣的名稱，但是形狀等實際模樣，後期只能在風衣等畫中所見。從而中期貴族女性的裝飾，只能用後期畫出的服飾與中期的文獻進行推測。把認爲成立於10世紀中~後半期的『西宮記』中的女裝束(卷17)，分爲禮服、朝服、平服的形式如下：

禮服：長袂衣、裳、褶

朝服：唐衣、裳、領巾、簪

宮宴陪膳更衣與袷襦、裙帶，重新穿著。

尋常服：唐衣、裳、領巾

我認爲這裏的禮服的長袂衣是有關大袖垂領

衣，幾乎繼承了奈良時代的禮服。關於朝服和平服，只用此文獻無法確認是後來的唐衣，還是在奈良出朝時的政服、平服的基礎上增加了唐衣、領巾。

11世紀的文獻中記載的唐衣基本構成如下：

唐衣・裳・桂・單・長袴。

重疊5枚、6枚桂，多時重疊10枚以上而穿著。即，中期以後成立的唐衣為中心重疊多層而穿著，是重視其重疊配色美的平安時代夫人上衣，也是上流貴族女性平常在臨時家居時的「重桂、單、袴」形狀。

4. 關於唐衣的成立過程

于927年成立的『延喜式』縫殿寮中，記載有天皇、中宮年間製作的服飾品。據記載，中宮的春季1個月份的服飾如下：

袍10領，背子10領，單衣10領，領巾4條，表袴裙2腰，下裙2腰，袴15腰，單袴20腰，桂衣3領，單桂衣3領。

這裏第一次出現叫做「桂(內)衣」的名稱，此名稱的衣服不可看作是天皇的服飾品。一般情況下，「平安時代夫人的上衣」是有關「內著」，並解釋為對上衣的內衣。但是觀察這裏的構成，怎麼也無法理解在「袍、背子」等上衣下面，重疊「桂衣、單桂衣」而穿著的事實。『延喜式』對製作各種服飾品所需的服裝，記述所需的用布量。對於袍1枚的用料為絹3.75m，桂衣1枚的用料為絹11.25m。另外，桂衣需要約3.2m左右的綿。如此看來很難想像袍的下麵重疊桂衣。更何況，其中記錄的袴、下袴的量非常多。天皇的情況下是個10腰。儘管想起女性的情況可能回多，但是下袴(單袴)的數量是天皇下袴的2倍。其中記錄的服飾品我認為，是在中宮1個月內穿著使用的物品量，並不是同時穿著使用的。即，「平安時代夫人的上衣」的「中(內)」並非是「在中(內)穿著的衣服」，而是內外的內(中)的意思。到現在，關於家庭內的事情叫做「中」。如此看來，我認為這裏的「桂衣、單桂衣」是在家庭內穿著的衣服。單袴、袴上穿著單桂衣，另外，在其上面重疊含有棉的桂衣的形象，就是當時上流貴族女性在家庭內部休閒時穿著的形象。

如上所述，我認為10世紀前半時的平安時代夫人的上衣，還只是作為臨時家居的服飾登場。於10世紀末的『宇津保物語』為女性衣服的中心。同樣的10世紀末的『落窪物語』，我們可以看到成為向後拉伸裳的引裳的想法。我認為10世紀後半期，已經完成以後的唐衣裳原型。

5. 整理

即，唐衣如上面所述，並非奈良時代的朝服或平服變化而成，而是作為臨時家居的服飾，於10世紀前半穿著的服飾發展成為平安時代的夫人上衣而成。據我推測，並不是這個曾經是臨時家居服飾的單桂衣上面，重疊棉衣平安時代的夫人上衣1枚，而是從配色美的願望角度出發，在不含棉的平安時代夫人的上衣上，添加圖案或重疊，從而為此穿著袴。在之前記載的『西宮記』中，對於10世紀後半，一般出勤服記載著唐衣、裳與領巾，並發現這是出勤服的必需品。從而可以推測出上流貴族女性們在臨時居家時是穿著桂的形象，但是在穿著桂的基礎上又穿唐衣與裳，掛上領巾，再出勤的。

如上所述，我認為唐衣是臨時居家服飾的平安時代夫人上衣演變而來的，再加上奈良時代服飾的殘留唐衣(背子)、裳與領巾而成。但是在其後的新日本風華過程中，領巾在儀禮時被省略。

和様の成立過程

- 唐衣裳装束を中心に -

増田美子

学習院女子大学

1. はじめに

日本では今日でも、宮中における重要な祭礼や婚儀の際には、東帯や唐衣裳装束が装われるが、これは、平安時代(794~1192)に成立した貴族服飾を受け継いできたものである。1000年以上も前に成立した服飾が、21世紀の今日まで營々と継承され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は、世界にも例をみないことであり、日本文化を特徴づけるものの一つでもある。

これら平安貴族服飾は、奈良~平安初期(710~9世紀前半)にかけて積極的に導入した中國の唐風服飾を、日本的に消化して成立したものである。しかし、唐風の服飾からどのようなプロセスを経て、今日の東帯や唐衣裳装束に連なる服飾が誕生したかは未だ明らかにされていない。

通説では唐衣裳装束は、奈良時代の服飾の下に重ねる衣服の増大が裳や袴を変化させたとしており、そのベースとなる服飾は朝服形式のものとする説がある。しかし筆者には、先行研究で述べられているように、奈良朝の衣服形式の下に重ねる衣服の増大によって成立したものと考えるがたい。よって、ここに拙論を展開し、多くの方々のご教示を仰ぎたいと思う。

2. 奈良時代の女性服飾

718年成立の養老衣服令により、奈良時代の女性服飾の構成を記すと、次の如くなる。

礼服〔内親王・女王・命婦〕

宝髻。衣。紕帶。褶。纈裙。襪。烏。

朝服〔内親王・女王・位のある女官〕

義髻。衣。紕帶。褶。襪。履。

制服〔無位の女官・庶民〕

衣。褶。(帶。襪。履)〔令義解〕

() 内は、著者の推測による。

礼服は皇族と5位以上の女官が重要な祭祀と元旦に、朝服は皇族以下初位以上の女官が四孟(1・4・7・10月)の1日に行われる朝會の時に着用した。また、6位~初位の女官は重要な祭祀や元旦にもこれを着た。制服は、無位の女官や庶民が四孟の1日や尋常(日常の出仕)時に着用した。礼服の衣は大袖垂領衣、褶はロングスカート、褶は褶の下に付ける飾り褶的なものと考えられる。朝服の衣も礼服と同様の大袖垂領衣と推測されている。即ち、唐の影響を受けて成立したと考えられる衣服令の礼服・朝服の基本構成は大袖垂領の衣とロングスカートの褶の組み合わせであった。これに對して、制服の衣の形態は衣服令からは窺うことができない。では初位以上の女官が日常に出仕する時の衣服は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であろうか。これは男性にも共通して言えることであるが、衣服令は主として大小儀礼時の服飾を定めたものであり、日常の出仕服に關しては男性の制服以外は色のみしか定めていない。即ち、日常出仕時の着衣は、色に關しては定めがあるが、その形態等は自由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3. 平安時代中期以降の貴族女性の服飾

平安中期以降の貴族女性の服飾に關しては、中期頃の諸文獻に種々の名称はみえるが、

形態等実際の姿は、後期の繪巻物等に書かれたものからしか窺うことができない。従って、中期の貴族女性の装いは、後期に描かれた服飾と中期の文獻から推測するしかない。10世紀半～後半頃成立と考えられる『西宮記』の女装束（巻17）を、礼服・朝服・尋常服という形でみていくと、次のようになる。

礼服：長袂衣・裳・褶

朝服：唐衣・裳・領巾・簪

内宴陪膳更衣は袷襦・裙帯を加える。

尋常服：唐衣・裳・領巾

ここでの礼服の長袂衣は大袖垂領衣のことと考えられ、ほぼ奈良時代の礼服を継承していると思われる。朝服・尋常服に関しては、この文獻だけでは後の唐衣裳装束なのか、奈良時代の朝服・尋常服に唐衣・領巾が加わったものなのかは不明である。

11世紀頃の文獻にみられる唐衣裳装束の基本的な構成は、

唐衣・裳・袿・單・長袴

であり、袿を5枚・6枚、多い時には10枚以上も重ねた。即ち、中期以降に成立した唐衣裳装束の中心は、幾重にも重ねられ、その重ねの配色美を重んじた袿であり、上流貴族女性の日常的な家居姿は、「重袿・單・袴」のみの袿姿である。

4. 唐衣裳装束の成立過程について

927年成立の『延喜式』縫殿寮には、天皇・中宮の年間に製作される服飾品が記されている。これによると、中宮の春季1ヶ月分の服飾は、

袍10領。背子10領。單衣10領。領巾4條。表袷襦2腰。下袷襦2腰。袴15腰。單袴20腰。袿衣3領。單袿衣3領。

である。ここに初めて「袿（うちき）衣」という名称の衣服が登場するが、この名称の衣服は天皇の服飾品にはみられない。一般には「うちき」は「内着」のことであり、上着に對する下着であると解釋されている。しかし、ここでの構成をみると、「袍・背子」等の上着の下に「袿衣・單袿衣」を一緒

に重ねてきたとは到底考えられない。『延喜式』にはそれぞれの服飾品を製作するのに必要な用布量が記されているが、袍1枚の用料は、絹3.75疋であるのに対して、袿衣1枚の用料は絹11.25疋である。そして、袿衣には3.2kgほどの綿が入っている。これらのことからして、袍の下に袿衣を重ねるということは考えにくいのではなかろうか。しかも、ここに記されている袴・下袴の量は非常に多い。天皇の場合は、それぞれ10腰ずつである。女性の特殊事情から多いということも考えられるが、下袴（單袴）の數量は、天皇の下袴の2倍である。ここに記された服飾品は、あくまでも中宮が1ヶ月の間に着用する品々であり、全てが同時に着られるものではないと考えられる。即ち、「うちき」の「うち（内）」は、「中に着る衣服」という意味ではなく、内と外の内（うち）の意味なのではなかろうか。今でも家庭内のことを「うち」という。ここでの「袿衣・單袿衣」は、いわゆる家庭内で着る衣服だっ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單袴・袴の上に單袿衣を着、そしてその上に綿の入った袿衣を重ねる姿が、当時の上流貴族女性の家庭内でのくつろいだ姿だ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

このように、10世紀前半の頃の袿はまだ家居の服飾として登場し始めたころのものと思われるが、10世紀終わり頃の『宇津保物語』になると、女性衣服の中心的な存在となっている。同じく10世紀末頃の成立とされている『落窪物語』には、裳が後ろのみに引く引裳となっていることを思わせる記述もみられ、10世紀後半には後の唐衣裳装束の原型は出来上が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

5. まとめ

即ち、唐衣裳装束は通説のように、奈良時代の朝服や尋常服が変化して成立したものではなく、家居の服飾として10世紀前半には着用されるようになった寛裕な服飾である袿が発達して成立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恐らく、この家

居の服飾であった単袷衣の上に、綿入れの袷を1枚重ねるというのではなく、配色美への希求から綿の入らない袷を幾枚か重ねるようになり、またそれにあわせて袴も大きくなってい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先記の『西宮記』には、10世紀後半の尋常の出仕服のところに唐衣と裳と領巾が記されており、これが出仕服としては必需品であることがわかる。よって、上流貴族女性達は家居の際には袷姿だけであるが、彼女達に仕える女房達はこの袷姿に唐衣と裳を装い、領巾を掛けて出仕したものである。

以上のように、唐衣裳装束は家居の服飾であった袷が発達し、これに奈良時代の服飾の名残である唐衣(背子)・裳と領巾を装って成立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しかしその後の更なる和様化の過程で、領巾は儀礼時以外には省略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